

나의 글쓰기

● ● ●
김 나 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곧은 선과 원의 조화로 또박또박 적히는 한글과 그 그릇이 담아내는 국어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짓과 하루와 삶을 실오라기 두께의 평면 위에 자박자박 적어내는 창작자들을 선망한다. 나는 언제나 글을 좋아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숭배하다시피 했다. 삼차원 현실보다 생생하고 아름다운, 활자와 여백으로 빼곡한 이차원 공간에서 허우적거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똑꼭 씹어 되새김질까지 해가며, 이 사람들은 대체 무얼 먹고 자랐기에 이렇게 멋진 글을 쓰는지 궁금해 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종종 글을 쓴다. SNS에 찼막한 토막글을 올리기도, 때로는 장황한 일기를 쓰기도 하지만, 대학생이 된 뒤에는 주로 과제로 제출하기 위한 학술적인 글, 레포트 혹은 페이퍼라고 불리는 것들을 쓰게 되었다. 마음에 꼭 드는 글을 써내기 위해 몇 시간이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만큼 차곡차곡 늘어난 나의 글들. 어느덧 졸업이 다가오니 제법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나만의 방법론도 생긴 것 같다. 글을 좋아하고 다른 이의 글쓰기를 궁금해 했던 나와 같은 그 누군가를 위해, 참 부끄럽지만, 내가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 나의 글쓰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선 지극히 당연하게도,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필요하다. 깊은 생각은 좋은 글의 씨앗이 된다. 오랜 사유의 과정을 거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면 더욱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은 물론 글을 쓰면서 소모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짧아지곤 했다. 글의 씨앗을 심는 사유의 과정에서 내가 보통 취하는 전략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작위로 종이에 적는 방법이다. 흰 종이를 놓고, 펜을 잡고, 글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생각을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적어나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부유하던 생각들이 형태를 갖추고 펼쳐지기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종이에 적어나가는 방법이 언제나 더욱 효

과적이었다. 손을 움직여 선과 원을 그리는 글 '쓰기'의 동작, 필기구가 종이에 닿아서 거치는 촉감은 생각을 단련하는 훌륭한 물리적 자극이다. 이때 적어놓은 문장들은 주로 글의 핵심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추후 글쓰기의 단계에서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주제와 관련된 다른 글들을 최대한 많이,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다. 생각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면 주제와 관련된 글을 검색하여 빠르게 읽어낸다.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문장은 그대로 따라 적어놓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재빨리 메모한다. 이때 원치 않은 표절을 피하기 위해 서지정보와 쪽수를 그때그때 기록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글쓰기의 과정에서 다른 글을 읽는 것은 현명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조언은 나의 사유를 무르익게 하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어준다. 이렇게 쓰고 읽으며 생각을 구체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뜩, 이제는 글을 쓸 수 있겠다 느껴지는 시점이 찾아온다. 많은 이들이 글을 쓰기 전 개요를 작성하라고 조언하지만, 사실 나는 개요 작성에 성공해본 적이 없다. 다만 이처럼 충분히 생각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글의 구심점이 될 핵심 주제와 내적 논리를 세운 뒤 글쓰기에 임한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지난한 글쓰기의 실전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절망적일 정도로 글 쓰는 속도가 느리다. 과제물이 여럿 겹치기라도 하면 스스로를 책망하며 별정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이토록 글을 느리게 쓰는 까닭은 나의 글에 대해 스스로 요구하는 기준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인 것 같다. 앞선 사유의 과정에서 글의 핵심 주장과 내적 논리를 세웠다면,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나의 생각을 가장 정확한 단어와 문장, 문단과 문단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내고자 온 힘을 쏟는다.

적확한 단어의 선택은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한 첫 단계다. 또한 단어 선택의 미묘한 차이는 문장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한다. 하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너무도 다채로운 선택지가 있으니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어 사용의 몇 가지 규칙을 예로 들자면 한 단어를 과하게 반복한다거나,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를 나열하는 것,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학술적인 글을 쓸 때에는 주요 개념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정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압축적인 단어들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한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떠올리고자 욕심부러보기도 한다.

문장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이제 선택지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단어의 배열, 부

사와 접속사, 쉼표, 마침표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낸다. 설익은 기교를 부리거나 없는 문장력을 뽐내려 했다가는 이내 다시 쳐다보기도 부끄러운 문장이 되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없으니 치명적이다. 따라서 언제나 또박또박, 군더더기 없는 문장, 바르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늘 맞닥뜨리는 어려운 문제는 문장의 ‘호흡’, 문장과 문장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있더라도 글에서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문장의 호흡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 문장의 구성과 길이를 미묘하게 고쳐가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찾기 위해 고심할 뿐이다. 다만 좋은 글을 많이 접할수록 문장 호흡에 대한 ‘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긴 하니, 다독(多讀)이 답일 것이다.

좋은 단어와 좋은 문장을 쓰는데 성공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문단이 나온다. 다만 단어와 문장의 경우와 달리 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언제나 염두에 두는 생각이 있다. 하나의 문단은 완성된 한 편의 작은 글과도 같다는 생각이다. 튼튼하고 보기 좋은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문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글들을 미리 그려놓은 설계도에 따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한다. 사유의 단계에서 수행했던 작업이 이때 빛을 발한다. 물론 글을 쓰다보면 때로는 애초의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글이 글을 낳는 경우, 생각이 글을 허겁지겁 쫓아갈 때가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특히 각 문단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계획했던 방향에서 살짝 어긋나더라도, 글이 마구잡이로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한 문단 한 문단 채워나갈 때마다 축적된 글의 흐름을 돌이켜보고, 또 이 글이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 그려질 것인지 가늠해보는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한 편의 조화로운 글을 완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고통스레, 느릿느릿 밟아나가다 보면 마침내 글이 완성된다. 완성된 글은 때로는 다시 들춰보기 싫을 만치 부끄럽고, 때로는 흠족해서 은근슬쩍 누군가에게 자랑하고도 싶다. 그렇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부모의 마음처럼, 나는 결국 나의 못난 글들과 어여쁜 글들을 모두 보듬고 만다. 온 시간과 노력을 쏟아 하나의 완결된 글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언제쯤 이 지난한 글쓰기의 과정이 쉽게 느껴질진 잘 모르겠다. 아마 평생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하지만, 쓰고 또 쓴다면, 내가 선망하던 아름다운 글들과 나의 글이 닮아 있는 날, 보다 자신 있게 나의 글쓰기를 모두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낙관해 본다.